안심 예방접종 배지

백신 맞고 증명서 발급받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법

코로나19 3분기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자에 한해서 거리두기 지침이 달라지거나 문화생활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됐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사진. 함신애(고양시 소셜기자)

예방접종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

3분기에는 임산부를 제외한 18~59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약 2,200만 명이 1차 접종을 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대입 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대 우선접종으로 시행되었고 8월부터는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는 두통이나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열,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진다.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당일에는 목욕이나 과격한 운동 및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예방접종 도우미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자신의 증상을 확인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1차 이상 백신 접종자에게 안심 예방접종 배지를 배부받게 된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이 배지가 접종 증명을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접종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예방접종 증빙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 스티커,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세 가지다.

1.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고양시 예방접종센터 3개소에서는 1차 접종 시에 예방접종 확인서를, 2차 접종 시에는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 시 현장 발급해준다. 지난 7월 2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온라인 발급,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2. 예방접종 스티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종이 증명서 발급과 함께 접종 증명 스티커 부착도 함께 시행 중이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함께 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지갑 속에 신분증은 늘 함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종이 증명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예방접종 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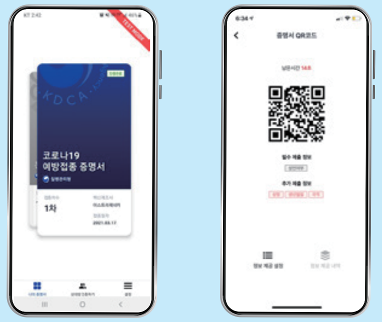
3.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전자증명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본인인증을 거치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요즘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늘 갖고 다니기 때문에 확인이 손쉽고 디지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디지털 증명서를 QR 스캔을 통해 검증하고 글로벌 호환성을 통해 해외에서도 예방접종 유무를 증명할 수 있어 용이하다.

※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인증(PASS) 및 토스 앱에서도 접종증명 가능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증명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상황이나 용도를 고려한 증명서 선택

증명서 발급은 각자의 사용 편의에 따라 원하는 대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가령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은 종이 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되고, 해외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은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 코로나 종식을 위해 서로 조심하고 철저한 방역과 적극적인 예방접종에 힘써야 하겠다.